

김포:마루

GIMPO CITY MONTHLY MAGAZINE

생각이 통하는 / 상식이 통하는 / 교동이 통하는 김포시 소식지

COVER STORY

<김포마루> 2월호는 용의 해를 맞아 88년 용띠 정덕영 대표가 이끄는 팔팔양조장을 방문했다.

02

February 2024 vol.251







대광위, 서울 5호선 김포연장 노선 조정(안) & GTX-D 김포-강남 직결 노선 발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서울에 1곳, 김포에 7곳, 인천 서구에 2곳 등 총 10개 역사를 설치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1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김포에서 강남, 삼성까지 직결되는 GTX-D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4p 참고)



김포마루를 구독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포마루>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기존의 신문 형식의 소식지에서 벗어나
책자 형식의 매거진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보는 재미를 선사하고,
일방적으로 시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이 가능한 매거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Afresh *Gimpo*

Contents



김포마루 2월호 vol.251

발행인 김포시장 김병수

발행처 김포시청 홍보담당관

주소 10109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마루 모바일

m.gimpomaru.gimpo.go.kr

팩스 031-980-2059

구독문의 031-980-2066, 2067

※ 우편 구독신청 (무료)



소통하는 도시
김포 소식채널

theme '시작'

온통 김포

04

발간사

06

김포 파노라마

2024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14

마루가 만난 사람

80만 팔로워의 인플루언서,
김포시 홍보를 시작하다!
얼미부부(김한얼, 하은미)

18

김포 스페셜

김포시 해외진출 지원사업

20

마루마블

늘 우리 곁에 있는 그곳을 찾아서
김포시 북변동



소통 김포

26

시민이 만드는 김포

양미희 시민기자
정경욱 시민기자

30

슬기로운 일터

제대로 쌀 만난 팔팔년 옹띠,
막걸리 시장을 뒤집어 놓으셨다!
팔팔양조장

34

김포씨 이야기

김포에서 만난 태권소년들

36

G-ART

민화 장인 이해원 작가



40

알쓸김잡

2024년 절세 꿀팁

42

김포인 사전

'시작'에 대한 희망의 말모음집!

공통 김포

44

김포 돌보기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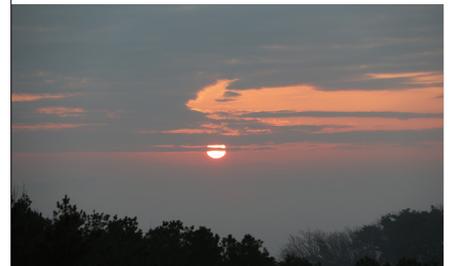
사람 사는 김포

48

통통소식

50

독자 이벤트



상호문화도시 김포의 시정소식지는 월별 테마를 전세계 각국의 언어로 소개하는 페이지로 시작합니다.

alustada

ЭХЛЭХ

开始

petta
reddast

ಶುರು

Rajt

셋타 렛다스트 (아이슬란드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mulakan

пачаць

αρχή

Wanderlust



시작은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어린 새의 첫 비행이 그러하고,
동반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혼식이 그러하고,
갓난아기의 첫 응얼이가 그러합니다.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체사레 파베세는
“세상의 유일한 기쁨은 시작하는 것이다”라며
시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김포마루> 2월호는 ‘시작’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2024년,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유영준, 왕준링, 유서진 가족 (장기동)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유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족센터에서 아빠랑 같이 활동하는
'해피파파'가 제일 재미있어요!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미술 놀이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유서진





왕준링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지금 남편과 2010년에 결혼을 했고,
3년 전에 김포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2024년에는 더 열심히 살면서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잠시 쉬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다.**

중국인 아내를 둔 유영준이라고 합니다.
김포시가족센터에서 '해피파파'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때 잠시 쉬었던
학원을 올해 다시 오픈했는데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준

올해 3학년이 된
김승후입니다.
저는 국어를 못해서
올해 국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게임도 잘하고 싶어요.
게임도 공부도 잘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승후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라

김승현

올해 5학년으로
올라가는 김승현입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건
사회 과목 공부입니다!
제가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사회를 조금 못하거든요.





윤은아, 김승후, 김승현 가족 (운양동)

윤은아

베트남에서 온 윤은아입니다.
김포시에서 아이들 방문교육을 해주는데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사업이 더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식

아내와 결혼하면서
 김포에 자리를 잡고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김포는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서울과 인천에 접해 있어
 참 좋은 도시입니다.
 전 코로나 때문에 하던 일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올해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전설아

재밌게
 '시작'하라

나시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설아 엄마 나시바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복직을 합니다.
 다시 재밌게 시작하고
 또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식, 나시바, 전설아 가족 (풍무동)



2024. 02 February



본 센터는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자립지원,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2009년에 베트남에서 온 김태희입니다. 8년째 김포시가족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올해는 더욱 열심히 시민들을 만나고, 어려운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과의 만남을 '시작'하라



박철상 센터장

2024년 1월 김포시가족센터장으로 부임하게 된 박철상입니다. 이제 가족센터장으로 첫 시작을 하면서 김포시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텐데요. 지난 25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종, 국적, 가구 형태 등을 초월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0만 팔로워의 인플루언서, 김포시 홍보를 시작하다!

얼미부부 < 김한얼, 하은미 >

2024년 김포시 첫 홍보대사로
얼미부부가 위촉됐다.
재미있는 렵스타그램으로
수많은 팬을 보유한
얼미부부는 결혼과 함께
김포시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영상을 통해
김포시 이곳저곳을 알려온
그들이 홍보대사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기대된다.





**Q. 10년차 장기연애 후 결혼한 부부의
럽스타그램&브이로그라니 흔한 컨셉은 아닌데요.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김포에 신혼집을 얻고 같이 지내게 되면서
친구들이 집에 많이 놀러 왔어요.
그런데 오는 친구들마다 저희 부부가 재미있으며,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인스타그램 팔로워 45만명,
유튜브 구독자 35만명에 이르는 인플루언서 부부로서
현재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콘텐츠는 결혼 생활이나 일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8일 열미부부가 김포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Q. 2022년부터 ‘열미쇼’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많은 비용이 들텐데도
마다하지 않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팬들과 만남을
가진 이유가 있을까요?**

“과분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돌려드리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Q. ‘결혼 바이럴’이라는 별명도 있고, 김포시
최수종이라고 불릴 만큼 애처가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10년의 연애기간부터 현재까지 두 분께서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확실한 서열정리로 인해서 제가 항상 지고 사는 걸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지만, 사실 영상에
담기지 않는 모든 부분에서 은미가 항상 많이 배려주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그런 배려가 중요한 것 같아요!”

- 열 -



**Q. 신혼생활을 김포시에서 시작하셨는데요.
김포시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 장모님과 은미가 김포로 이사를 왔는데 너무 만족하고, 추천을 해서 자연스럽게 김포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살고 보니 저희 둘 다 무척 만족스럽고,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친구들에게 항상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Q. 그동안 김포시 맛집도 많이 소개해주는 등 김포시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오셨는데요. 두 분에게 김포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 있죠. 터가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저희가 김포에 와서 잘 됐거든요.”

Q. 올해 1월 8일 김포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앞두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미가 먹는 걸 좋아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김포 맛집을 자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맛집을 가보고자 김포에 많이들 놀러 오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은근히 김포를 맛보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은근히 스며드는 작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키움 히어로즈 경기에서 시구/시타를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이뤘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앞으로 또 이뤄가고 싶은 꿈이나 목표에는 무엇이 있나요?

“올해는 얼미부부에서 한 단계 나아가 얼미가족이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웃음)”

Q. 김포시 홍보대사로서 시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렇게 김포시 홍보대사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맛집을 탐구하고 많은 분들께 소개하는 홍보대사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미부부 자세히 보기

QR코드를 통해 얼미부부의 SNS 채널을 방문해보세요!





이씨부부

김포시민여러분 :)
항시 행복만 하세요♥

시작하는 기업을 위하여 김포시 해외진출 지원사업



김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해 매년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외진출을 시작하는 기업을 위해 김포시가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과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추진사업

#1 무역보험료 지원

+ 김포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보증)료를 지원한 사업이다. 김포시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혹은 최근 1년간 수출액(기준 금액은 2024년 공지 예정),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등이 있으며, 상세 기준은 2024년 공지될 예정이다.

#2 샘플 및 수출물류비 지원

+ 김포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김포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 인증 획득 시험을 위한 샘플 발송 시 발송비를 지원한다. 또 정식 수출 물류비도 지원하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 비율 및 지원 규모는 2024년 새롭게 공지될 예정이다.



#3 국내·외 전시회 지원

+

김포시는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시회를 모두 지원하며, 참가비,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의 지원 품목이 있으니 2024년 지원 내용을 향후 공지가 되면 확인하기 바란다.

#4 콘텐츠 제작 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홍보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도 있다. 기업 소개 및 생산 제품 상세 안내를 위한 외국어 카탈로그 및 브로셔 제작을 기본으로, 전시회 홍보용 외국어 현수막 및 배너, 제품 고급화를 위한 수출패키징, 검색엔진 최적화를 위한 외국어 웹사이트 제작 등을 지원한다. 추후 지원 공지에서 가점 부여 기준 및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하기 바란다.

#5 해외시장 개척단

+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과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한다. 2023년에는 국제 전시회인 ‘2023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했으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2개국 파견을 추진했다. 2번에 걸친 해외 파견에 총 20개 기업이 참여했고, 2024년에도 진행한다.

기간 2024. 1. 1. ~ 2024. 12. 31.

장소 상반기(6월) :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하반기(10월) : 일본(종합 전시회)

사업내용

김포 중소기업 중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업체 대상 김포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상담회에 직접 참가하여 해외바이어 매칭 등 해외판로개척 및 경쟁력 강화 모색

추진계획

추진 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024. 1. ~ 12.	참가희망업체 모집	1월, 5월
	참가제품 현지 시장성 평가 및 선정결과 발표	2월, 6월
	참가업체 사전간담회 실시, 참가요령 안내	5월, 9월
	상담회 참가	6월, 10월
	시장개척단 파견 결과보고	7월, 11월

● ● ● 신규사업

김포시는 ‘경기북서부 FTA통상진흥센터’와 김포시는 ‘경기북서부 FTA통상진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기업방문 1:1 FTA 종합 컨설팅

수출(예정)기업 및 수출기업 협력사에 관세사, 무역·운산지 전문가를 파견해 전문 상담을 실시

기업 실무자 맞춤 교육

FTA 및 통상 실무교육(통관, 관세, 수출입회계, 무역 실무)과 전문 교육(해외 마케팅, 온라인플랫폼 등) 실무 중심의 온·오프라인 교육

기업 실무자 설명회

해외 마케팅(무역사절단, 해외바이어, 바이어초청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국가별 관세 실익 분석 등 지원

늘 우리 곁에 있는 그곳을 찾아서

김포시 북변동

2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다.
추위가 사그라지고 앙상한 가지에
움미 곧 터질 듯 부풀어 오른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연은 봄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한 해의 시작이 1월이라면,
계절의 시작은 봄을 기다리는
2월부터가 아닐까? 설날이 있는 2월,
김포시민들과 오랜 세월 함께한
오일장과 김포성당을 찾았다.





김포성당의 스테인글라스가 빛을 받아 신비롭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 오일장

시장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스치는 모습들이 있다. 활기차게 북적이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사람들, 반가운 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좌판에 가지런히 진열된 상품들이 그것이다. 시장은 단순히 상품과 사람이 모인 곳만이 아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과 이야기의 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일장에서는 ‘5일’ 동안 차곡차곡 쌓인 이야기들이 상품 보따리와 함께 풀어 헤쳐지고 그 이야기들은 장바구니에 옮겨 담긴다. 이처럼 우리네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시장은 오랜 세월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김포장은 끝자리 2·7일에 열리는 오일장이다. 김포장을 북변장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장이 서는 지역명에서 따온 이름이다. 북변동은 옛 김포군청(전 김포경찰서)의 북쪽에 있는 마을로 북변리 또는 북녘말이라 불렀다. 현재 김포장은 북변공영주차장에서 열리고 있다. 설날을 며칠 앞두고 김포장을 찾았다. 한결 따뜻해진 날씨 덕분에 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옷차림이 이전보다 훨씬 가볍다. 몸이 가벼운

만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워 보였다. 시장 한가운데에서 ‘뽕’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의 진원지를 향해 갈수록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역시 상상했던 뽕튀기였다. 그런데 어릴 때 본 것과 기계가 달랐다. 소음과 연기를 줄이기 위해 기계 앞에 사각 금속 틀을 덧대놓은 것이다. 뽕튀기 기계 주변엔 쌀, 옥수수 등 다양한 곡물들이 가지런히 줄을 서 있다. 그 덕분에 순번 대기표가 없어도, 따로 줄을 서지 않아도 괜찮았다. 뽕튀기 장수가 깡통에 든 옥수수를 기계에 넣은 뒤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후 10분 정도 지났을까. 호루라기를 한번 불더니 연이어 뽕~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뽕튀기 장수 옆에는 강정 만드는 손길이 분주했다. 뽕튀기부터 강정까지 나름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다.

장터 구경도 식후경, 출서는 맛집 즐비

흔히 시장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어느 시장이든 주력 상품이 있기 마련이다. 김포장은 어패류를 비롯해 수산물과



김포장에는 생선 좌판과 반찬 좌판이 언제나 인기가



김포장이 북변공영주차장에 열렸다

청과류가 유난히 눈에 띈다. 하나같이 신선해 보인다. 비좁은 천막을 지나 북변공영주차장 아치문 방향으로 향했다. 의류와 각종 주방기계,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좌판이 이어졌다. 한편에는 오리와 닭을 팔기도 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은 김포장에서도 통했다. 점심때가 되자 사람들이 먹거리를 판매하는 천막으로 향했다. 잔치국수, 칼국수, 국밥 등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들은 물론이고 숯불에 구운 등갈비, 메추리와 생선구이 등 술안주로 제격인 음식들도 많았다. 잔치국수와 등갈비를 먹는 아이가 눈에 띄었다. 아이가 학원을 마치고마자 바로 왔다는 가족은 장날마다 빠지지 않고 ‘출척’한다며 웃었다. 등갈비집 옆에 긴 줄이 ‘갈지(之)’자 모양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줄을 따라가 봤더니 ‘ㄱ’자 형태로 테이블이 놓였고 그 중앙에 한 남성이 음악에 맞춰 춤추며 칼국수를 썰고 있었다. 33년째 칼국수를 팔고 있다는 사장은 어머니를 도우며 장사를 배웠다고 했다. 그에게 어머니의 말씀은 잠언이었다. “밀가루 장사는 한 번 더 치대는 놈이 이긴다”, “장사하는 놈이 힘들면 손님이 드시기 좋고, 장사하는 놈이 편하면 손님들이 그 맛을 바로 안다”, “사람마다 양이 다른데 1인분을 담아 놓지 말라, 손님이 배고파 가면 그 집은 망한 거다” 등 어머니가 전한 인생 말씀이 그의 입에서 줄줄 흘러나왔다. 이틀 동안 숙성시켜 만든 칼국수는 유난히 쫄깃했다.



추가로 돈을 받지 않고 무한리필되는 칼국수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구 김포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오랜 세월 시민과 함께한 김포성당

1월은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십상이다. 번잡한 일상 가운데 놓친 게 있다면 2월에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김포장 가까운 곳에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히 성찰하기 좋은 곳이 있다. 천주교 인천교구 성체성지로 지정된 구 김포성당이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자 넓은 주차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주차장에서 바라보면 구 김포성당과 새 성당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주차장을 가로지르면 철쭉에 에워싸인 성모 마리아 동상이 있고 그 옆에 구 김포성당 가는 돌계단이 이어진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구 김포성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포성당은 1910년 걸포리 공소로 시작하여 광복 이후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1946년 본당으로 승격됐고, 그 이듬해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다. 현재 건물은 1955년 신원식 주임신부와 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전후 당시 신자 대부분이 농민인 터라 번번한 건설장비는 엄두도 내지 못한 시절이다. 그러나 농사에 쓰던 농기구로 땅을 일구고 석재를 캐어 날랐다고 한다. 그나마 해병대의 장비 지원이 있었기에 1956년 12월 17일 봉헌식을 가질 수 있었다.

김포성당은 중앙상부의 종탑과 뾰족한 아치 창호가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인상적이다. 입구는 둥근 아치 형태이고 그 위에 종탑이 우

뚝 서 있다. 종탑의 돔은 르네상스양식이지만, 전체적인 평면 양식은 고딕양식이다. 앞뒤가 길고 좌우에 그보다 짧게 돌출된 라틴십자가 형식을 띤 게 대표적이다. 또한, 화강석 조적 기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1950년대 우리나라 성당 건축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교회 건축은 서양 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마련인데, 구 김포성당은 여러 양식을 결합함으로써 독특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희망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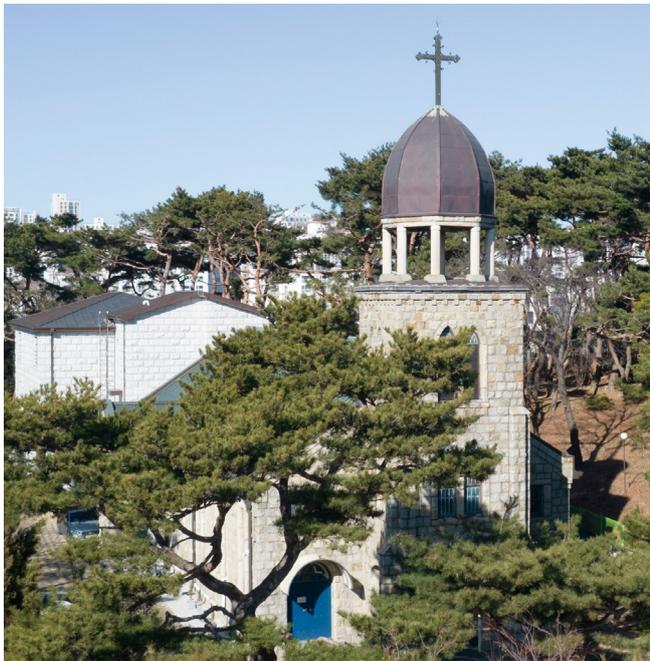
성당 내부는 기둥이 없이 탁 트인 강당형이다. 외부와 달리 최근에 보수공사를 마무리해 산뜻한 분위기다. 그런데도 높은 천고로 인해 엄숙한 분위기가 실내에 감돌았다. 긴 나무 의자 수십 개가 정면 중앙을 향해 자리했다. 정면 좌우에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동상이 놓여 있고, 중앙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고개를 떨구었다. 내부에 조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좌우 측면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은은한 빛이 내부를 형형색색 밝혔다. “우리는 희망을 통하여 하느님께 다가갑니다”라고 중앙에 크게 적혀 있는데 ‘희망’이라는 단



새로지는 본당과 나란히 자리한 구 김포성당

어가 머릿속에 남았다. 언제부터인가 희망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성당 밖 숲속은 ‘십자가의 길’로 이어졌다. 이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을 선고받은 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죽임당 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 길을 ‘고난의 길’이라 부르기도 한다. 소나무숲에 조붓하게 난 오솔길은 구 김포성당과 새 본당을 둘러싸듯 흘러간다.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었을 소나무들이 간절함을 아는 듯 하늘로 향해 쪽쪽 뻗었다. 그 가운데 몇몇은 신자들의 기도 소리를 듣는 듯 가지를 늘어뜨려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것 같다. 성당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마을 풍경과 재개발 현장까지 한 눈에 담겼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신과 인간의 영역은 공간의 높낮이로 구분되는 게 아닐까”하는. 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의 영역에 들어와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과 평화를 얻는다고 생각하니 종교를 떠나서 이 공간이 한없이 고마울 따름이다. 새롭게 시작될 2월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정면에서 바라본 구 김포성당, 동양식이 인상적이다



인근 맛집 소개

무지개분식 본점

생활의 달인에 2번이나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분식집이다. 학창시절이 생각나는 옛날식 떡볶이를 판매하고 있다. 떡볶이에 순대, 오뎅과 김밥까지 주문하면 진수성찬이 안 부럽다.



대표메뉴 떡볶이/순대 5,500원, 오뎅(3개) 2,000원

주소 경기 김포시 중구로 15

문의 031-983-7212

중화요리 태화관

김포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60년 전통의 중화요리 전문점이다. 과거 북변동이 ‘김포의 명동’이라 불리던 시절부터 짜장면을 만들어왔다. 가을 운동회 때면 1,000그릇도 팔았었다고 한다.



대표메뉴 옛날짜장 7,000원, 짬뽕 9,000원

주소 경기 김포시 북변중로 59-1

문의 031-986-3335

박천순대국

1979년 문을 연 순대국집이다. 45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곳으로, 5일장 때 방문하면 사람으로 가득 찬 풍경을 볼 수 있다. 벽면에는 유명인들의 싸인도 가득하다.



대표메뉴 순대국밥 8,500원

주소 경기 김포시 북변중로68번길 16-9

문의 031-984-3789

책에서 소개된 여행지를
우측 QR코드를 통해
영상으로 즐겨보세요!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의 새 이름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GIMPO SCIENCE TECHNOLOGY HIGH SCHOOL

88년 역사의 김포제일공고가 새로운 이름으로 탈바꿈했다.
2024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김포과기고'를 소개한다.



(위) 수업중인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화장품화학과 학생들
(아래) 스마트융합기계과 학생

1936년 개교 후 8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가 2024학년도부터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김포공립실업전수학교로 개교하고 광복이 있던 1945년 6년제인 김포농업중학교로 개편했다. 이어 6·25전쟁 발발 이듬해인 1951년 김포농업고등학교와 김포중학교로 학제를 개편하고 1952년 김포농업고등학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어 1969년 11월, 김포중·종합고등학교로 다시 한번 교명을 변경한 후 1975년 중학교와 종합고등학교로 분리했다. 그 후 22년간 김포종합고등학교를 교명으로 사용하다가 1997년 김포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로 새 이름을 입었다.

2000년 들어 새천년에 어울리는 김포제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2014년 김포제일고등학교가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으로 분리되면서 북변동에 있는 본교를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 지난해인 2023년까지 10년간 사용해 왔다.

그리고 대망의 2024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10년간 사용해 온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를 명실상부한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로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노진섭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교장은 홈페이지 학교장 인사말을 통해 "특성화고 교육은 '아는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체제가 변화되고 있다"라며 "본교 학생들에게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직업 교육 능력과 전공 관련 실무능력을 함양시킬 것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 기술사관 사업, 중소기업청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 역량강화 사업 등을 운영해 능력 중심 사회에서 학생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는 1936년 개교 이후 김포지역 명문으로 자리매김하며 1만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 졸업생은 각계각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위) 수업을 듣고 있는 김포과기고 학생들
(아래)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외부 전경

우측 QR코드를 통해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홈페이지 & 유튜브 바로가기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보내는 ‘슬기로운 방학생활’

지난 1월 풍무도서관이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정경옥 시민기자의 기사를 살펴보고 2월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보자.

바야흐로 방학 시즌이다. “방학 때 뭐했지?”라는 질문의 빈칸을 채워야 하는 의무감 때문일까? 매주 찾아오는 주말이지만 방학 때의 주말은 뭔가 특별하게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욱 강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약간의 부지런함과 정보력! 몇 번의 검색 끝에 마침 풍무도서관에서 진행되는 1월 프로그램 [풍씨네 영화여행] 안내가 눈에 띄어왔다. 그래! 이번 주말엔 이거다!

[풍씨네 영화여행]은 풍무도서관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됐다. 별도의 접수 없이 해당하는 요일과 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목직한 문을 열고 들어서니 널찍한 공간에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정면엔 커다란 프로젝트 화면이 영화 상영을 준비하고 있었다. 2시가 되자 예고대로 애니메이션 영화가 시작됐다. ‘도서관에서 영



화를?’이라며 호기심 반, 의심 반 눈빛을 보내던 아이들도 금방 빠져들었다. 상영시간은 1시간 반 남짓. 집중력이 길지 않은 아이들이 보기에 부담 없는 시간이다. 완전한 극장 분위기를 구현할 수는 없었지만 넓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관람하기엔 제격이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오니 그제야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창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겨울 별에 기대어 책을 읽는, 한없이 자유롭고 평온한 풍경들... 그 모습들을 보며 풍무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곳이 아니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지역민들의 사랑방’ 같은 곳으로 자리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을 따라 책장 사이를 오가다 보니 어느새 내 손에도 책 한 권이 들려있었다. 공간이 주는 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한 몸처럼 늘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책을 펴게 하는 힘. 그리고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 분위기를 받아들여지게 하는 힘.

김포에는 장기, 통진, 양곡, 고촌, 풍무, 마산 등 총 7곳의 김포시립도서관(현재 중봉도서관은 휴관)과 여러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도서관에서는 때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책을 가까이하려면 도서관 가는 길이 즐거워야 한다고 한다. 단순히 책 읽기를 목표로 하면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 있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책 읽는 환경에 노출이 된다면 방학 때 가능한 책을 많이 읽고픈 학부모들의 바람이 이뤄질지도 모르겠다. 오늘의 나처럼 말이다.

풍무도서관

주 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146번길 101,
풍무도서관(풍무동)

이용시간 평일 09:00~22:00, 주말 09:00~17:00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문 의 031-5186-4870



우측 QR코드를 통해
김포시도서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풍무도서관
풍씨네 영화여행

일정표: 2024.02.

2월 3일 토요일	2월 17일 토요일
<p>파이어 카트 상영시간: 92분(다방)</p> <p>1932년 뉴욕, 연쇄 방화 사건과 함께 800명의 소방관 실종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초우 소방관 '조'의 이야기</p>	<p>술속왕국의 꿀벌여왕 상영시간: 88분(다방)</p> <p>술속왕국 특별행사를 앞두고 시간전 꿀벌 여왕 '대개웃'을 찾기 위한 술속의 귀뚜라미 마슈사와 친구들의 이야기</p>

장소: 풍무도서관 3층 다목적실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음식물 반입금지

제대로 쌀 만난

팔팔년 용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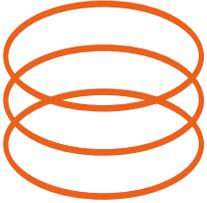
*

막걸리 시장을

뒤집어 놓으셨다!



팔팔양조장



30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쌀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김포에 모였다. 단순히 가장 좋은 쌀을 찾아 김포로 오게 됐다는 정덕영 대표. 그가 88년 용띠라서 사명도 팔팔양조장이다. 청룡의 해, 제대로 물 만난 팔팔양조장을 소개한다.



팔팔양조장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좋은 쌀로 만든 좋은 술

청록파 시인 박목월은 <나그네>라는 시에서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라 노래했다. 어떤 시인은 이 문장을 두고 서정의 극치라 말하기도 했다. 그의 말처럼 술이 익어가는 풍경이라 하면 어쩐지 서정적이고 따스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김포에도 이처럼 술이 익어가는 곳이 있다. 바로 2020년 사업을 시작한 팔팔양조장이다. 사명이 팔팔양조장인 이유에는 정덕영 대표가 88년생인 것도 있지만, 쌀 한 톨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농부의 손길을 88번 거쳐야 한다는 옛말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쌀미(米)자는 여덟 팔(八)이 합쳐진 글자이기도 하다.

“원래 양조장 스타트업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해왔어요. 양조장을 짓는 것부터 술의 제조 및 생산 등을 해오다가 2020년 4월 독립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쌀로 막걸리를 만들어 테스트를 해봤는데 김포 금쌀이 제일 맛이 좋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쌀과 달리 김포 금쌀은 단일 품종으로 도정이 되어 품질이 균일했고, 단백질 함량이 낮아 가장 맛이 좋았다고 한다. 그는 물보다 쌀을 더 많이 넣어 막걸리를 만들었고, 쌀 함량이 높으니 쌀맛이 술맛을 좌우했다. 결국 좋은 술을 만들기엔 김포 금쌀이 최고라고 생각한 그는 직원들과 함께 김포로 거처를 옮겼다. 가장 좋은 쌀로 가장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팔팔막걸리를 소개하고 있는 정덕영 대표



팔팔양조장의 대표 상품과 콜라보레이션 제품들



김포 금쌀을 사용하여 만드는 팔팔막걸리

팔팔한 청춘, 더 큰 꿈을 꾸다

“팔팔양조장의 경영 철학이 ‘가장 좋은 원료를 써서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자’입니다. 특등급 금쌀로 막걸리를 만들고 있지만, 무감미료 막걸리 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편에 속해요. 생산 과정의 과학화·기계화로 인건비를 최소화했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팔팔막걸리는 그동안 우리나라 술의 근본이 되는 탁주를 꾸준히 연구해왔으니 이제 한 발 나아가서 다른 술을 출시해볼 예정이다. 특히 생막걸리는 수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쌀로 만든 탁주를 증류해 소주를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수출까지 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마케팅’이라 답했다.

끊임없는 연구 끝에 얻은 결실

2021년 첫 출시한 팔팔막걸리가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물보다 쌀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막걸리를 가만히 두고 밑으로 가라앉은 원액의 양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덕영 대표는 팔팔막걸리의 안주로 밥 반찬을 꼽는다.

“쌀 함량이 높다 보니 일상적으로 식사할 때 드시는 반찬들이 안주로 꽤 잘 어울립니다. 반면에 재미있는 건 멕시코 음식인 타코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젊은 피로 뚝뚝 뭉친 만큼 팔팔양조장은 신제품 개발에 대한 열정도 뜨겁다. 끊임없이 좋은 술을 연구·개발하고 있고, 팔팔막걸리 출시 후에도 여러 제품을 출시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드포션이다. 팔팔막걸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액인데, 쌀이 가진 본연의 맛과 향을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다. 도수가 14.3도로 다소 높아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온더락으로 많이 즐겨 마신다고 한다. 바로 이 하드포션이 ‘2023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탁주·생막걸리 전통주류 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1,004개 브랜드가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시상식에서 얻은 큰 결실이었다.



팔팔막걸리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양조장 직원



“사실 그동안은 공장을 짓고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느라 마케팅에는 신경을 못썼어요. 팔팔양조장은 김포 금쌀을 쓴다는 부분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금쌀도 아직 저평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 쌀과 저희 양조장을 주제로 콘텐츠로 제작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덕영 대표의 꿈은 더 큰 양조장으로 이전해 김포의 관광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팔팔양조장 직원들이 모두 조리사 출신이기 때문에 공간만 충분하다면 양조장을 견학하고 좋은 음식과 술을 맛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의 꿈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정덕영 대표가 직접 만든 홍보물

막걸리 하이볼 제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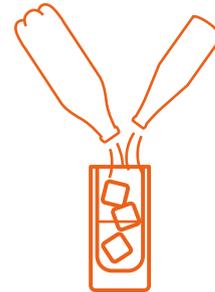
1

하이볼에 어울리는 긴 유리잔을 준비한다.



2

유리잔에 얼음을 가득 채운다.



3

팔팔막걸리와 톤닉워터를 5:5 비율로 따른다.



4

라임즙을 짜넣는다.



5

라임으로 가니쉬하고 맛있게 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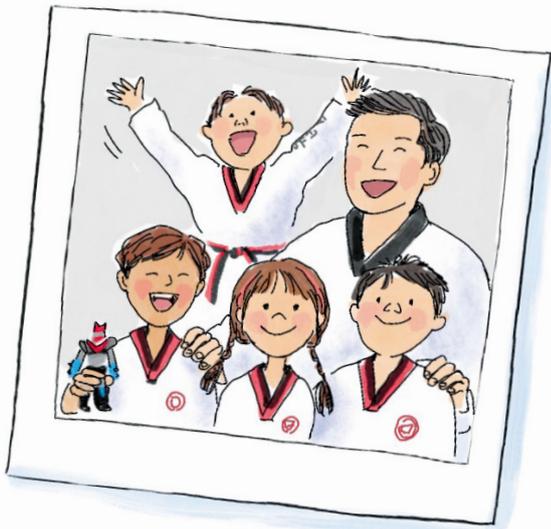
김씨 이야기 김포에서 만난 태권소년들

저희 아버지는 한국체육대학교를 나오신 태권도인입니다.
우리집은 모두가 태권도를 하는 태수저(?) 집안이에요.
그래서 잠실 올림픽경기장 앞에 살았죠.
시간이 흘러 전 태권도 국가대표를 거쳐 시범단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큰 무대에 서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서울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죠.



그러던 제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1년 2월 김포의 한 태권도장을 인수하게 됐어요.
 저는 김포시가 공항만 있는 시골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저녁에 찾아간 김포는 휘황찬란했어요.
 커다란 건물들과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리고 방문한 태권도장 창문으로 환한 불빛과
 아이들의 기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저는 이곳에 도장을 차리고
 신혼생활을 해야겠다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구래동에 위너스타권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시작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십자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하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통해 꿈과 희망을
 가르치고 있으니 좌절할 수는 없었어요.
 힘든 시간을 버티고 버티니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지금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저희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중국인과 베트남 어린이도 있죠.



저에게 김포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서울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내 집 마련과 도장 오픈을 이뤄냈거든요.
 김포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2024년, 저는 아내와 함께 열심히 꿈을 이뤄가고 싶습니다.

EVENT - 사연 모집!

김포에 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따뜻한 동화로 만들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49페이지 독자 이벤트를 참고해 주세요.



전통에서 시작해 새로움을 그려내다

< 민화 장인 > 이혜원 작가



쌍희책가도(2020년, 순지 봉채, 분채)

효심이 지극했던 정조는 1795년 수많은 관료들과 함께 아버지를 모신 화성으로 행행했다. 기록을 중히 여긴 정조는 이 능행차를 그림으로 남겼는데, 지난해 13명의 민화 작가가 모여 23m에 이르는 정조대왕 능행반차도를 복원했다. 그 작업을 이끈 민화장인 내담 이혜원 작가를 만났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화를 그리거나 가르치고 있는 민화 작가 이해원입니다. 내담이라는 호는 남편이 지어주었는데 안 내(內)자와 맑을 담(淡)자를 써서 마음이 여리고 맑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민화와의 첫 만남은 언제인가요?

지난 2018년에 한국문화센터 김포지부에서 민화를 처음 접했어요. 오랜 시간 디자인 업계에서 일해왔던 저는 원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2018년에는 디자인을 그만 두고 한국문화센터에서 캘리그래피를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문화센터 수업에 민화를 넣어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민화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후로 꼭 빠져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민화만 그렸던 것 같습니다.

Q. 민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색감이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은은한 파스텔톤을 좋아했는데, 이 전통 민화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민화는 칠하면 칠할수록 색이 연하고 은은해지지만 더 깊이가 생기는 그림입니다. 수채화나 서양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매력이 제게 다가왔죠. 하루에 8시간 이상 민화를 그려왔고, 지금도 그리고 있습니다.

Q. 현재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한국문화센터 김포지부의 민화 작가들이 모여 김포민화회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지도 선생님께서 김포민화회를 이끌면서 작가분들의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작업했던 '정조대왕 능행차만차도'도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전통한지공예가협회 회장님과의 인연으로 한지와 민화를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지로 액자를 만든 것도 그러한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Q. 2021년부터 무드등과 텀블러, 컵받침 등 현대적인 감각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왔는데요. 이러한 도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희 민화 작가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작품활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에디션을 만들고 있어요. 민화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크고 가격이 비싼 편이라 대중들의 접근성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저희 작품을 카피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소품으로 제작하고 있어요. 과거 디자이너로서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도 오랜 시간 해왔기에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보정할 수 있어 실제 작품보다 더 예뻐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민화를 활용한 소품들을 '에디션'이라고 부르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보고 있습니다.



총 길이 23m에 이르는 정조대왕 능행차도



Q. 작품을 구상하는 데 있어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통 민화는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예부터 전해내려오는 본이 있어서 정직하게 그것을 따라 그리며 전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그림을 그려도 사람마다 색감이나 깊이가 다를 수 있죠. 반면 다양한 사람들이 민화를 배우면서 창작 민화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전통의 민화를 지키면서 현대의 어떤 새로운 요소를 접목하는 것이죠. 저는 철저하게 전통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새로운 그림을 선보이고 있어요.

Q. 지난해 13명의 민화 작가들이 모여 23미터에 이르는 ‘정조대왕 능행차반차도’를 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작업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전통한지공예가협회에 민화 작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종로구에서 한지문화재를 개최하는데 무언가를 기획해야 해서 회장님의 논의를 통해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현하게 됐는데, 각자 그릴 부분을 분배하고 서로 크기와 색감이 맞을 수 있도록 관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그림 속 작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각자의 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호도▲
(2023년, 순지 봉채, 분채)

▼책거리(2작품)
(2020년, 순지 봉채, 분채)



Q. 저희 이번호 주제가 ‘시작’입니다. 2024년 작가님께서서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월간민화>라는 잡지가 있어요. 민화를 다루는 유일한 잡지인데, 거기서 1년에 한 번 세화전을 합니다. 세화란 연초에 연하장을 보내듯이 왕이 대신들에게 그림을 나눠주던 풍습을 말하는데요. 그 세화전에 전시를 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희 민화회 회원들이 나눠 그린 세화를 모두 모으면 커다란 청룡이 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국회에 전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사를 잘 통과해 국회에 전시가 된다면 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아트홀에서 2번의 전시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민화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민화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절세
꿀팁만 알면

나도 투자 고수!

바야흐로 투자의 시대다.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로 사람들은 일반적인 저축에서 벗어나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수익을 위해 투자를 했다면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법. 2024년 투자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절세 꿀팁을 전문가에게 물었다.



#1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세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알려진 ‘ISA계좌’는 은행, 증권사 등을 통틀어서 딱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통해서 정기예금뿐 아니라 펀드 투자도 할 수 있고, 증권사를 통해 개설할 경우라면 국내 상장주식거래나 채권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든 펀드가든 투자가 새로운 것도 아닌데 굳이 ISA계좌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투자를 통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최소 200만 원(일정소득기준 충족 시 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기 때문이죠. 투자가 잘 되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부과합니다.

일반계좌에서 투자한다면 비과세 혜택도 없고 15.4%의 세부담이 발생하는 데다 자칫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최대 49.5%에 육박하는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 이에 비하면 ISA계좌는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수단입니다.

#2

‘순이익을 실현해 조절’하세요.

해외주식을 거래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은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간 250만 원의 이익에 대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때 이익이란 실제로 매도한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즉 A주식에서 300만 원을 벌고, B주식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순이익은 200만 원이 되어 공제 금액 250만 원 이내여서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함정을 주의하세요. A주식은 팔았는데, B주식을 안 팔았다면 실현된 순이익은 300만 원이 되어 250만 원 공제를 초과하지요. 그럼 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손실 난 주식 팔기는 속상한 일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손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냉정함도 필요해요. 250만 원에 맞춰 ‘순이익을 실현해 조절’하는 용기가 있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리츠’ 상품으로
배당소득세를 아끼세요.**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공동 투자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면 리츠투자자에게 배당형태로 분배를 해주고요.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어서 타이밍이 잘 맞으면 차익을 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손실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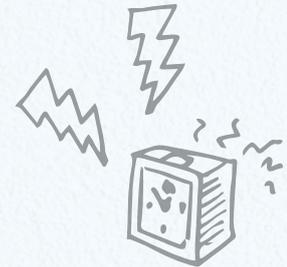
세제 측면에서 보자면 2026년까지 리츠에 투자한 사람은 자신의 투자일로부터 3년 동안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이 아닌 9.9%의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혜택을 받습니다. 단, 투자원금 5천만 원에 한해 적용됩니다.

최근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계좌로 리츠투자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추후 연금방식의 수령을 통해 5.5%의 분리과세도 가능한 만큼 장기투자 관점에서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세제혜택을 찾아 연구해가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말하는 나만의 땡언?! ‘시작’에 대한 희망의 말모음집!

PLAY

{ 시작하려거든 말을 멈추고,
행동을 하라! }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를 보다가 알게 된 말입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작하려거든 행동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려거든 말보다는 실천을 먼저 해보는 건 어떨까요? 행동으로 보여준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저는 미팅에 지각하기 싫어서 30분 먼저 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겨봤어요! ^^”

- 최*주 -

{ 출발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출발부터 해야 한다. }

“제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마다 생각하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결심을 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울 것이라 느낍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한다면 분명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 이*울 -



{ 글의 기본재료는 단어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고 싶다면 기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

“이외수 작가 저서 <글쓰기의 공중부양> 1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글뿐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 기본을 무시하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기본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연습하셔서 성공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 이*성 -





김포시 시민들에게 이번 달 주제와 관련된 ‘나만의 명언’을 받았어요!
이번 달에는 ‘시작’과 관련된 유명인의 명언이나 작품 속 대사,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해준 좋은 말들을 모아봤어요.
시민들이 알려준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 일단 저질러보자. }



“책에서 읽은 글귀인데 어떤 일은 일단 저지르고 나면 수습할 기회가 생기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방향도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시작도 전에 망설이며 위축되기보다는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 깨닫고 있습니다.”

- 이*미 -

{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

“유명한 프리미어리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글귀입니다. 기본이 탄탄한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 It ain't over till it's over. }

“무슨 일이건 최선을 다하자!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되새김질하는 제 좌우명이랍니다.)
지난해 말부터 스케이트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 여*민 -



{ 시작이 반이다. }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 공통된 부분이 ‘행동하라’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멋진 포부도 결국은 ‘시작하지’않으면 소용없다. 목표로 정한 그 길을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2024년 내 첫 시작은 새로운 일에 도전이다. 결과야 알 수 없지만 꾸준히 천천히 해보려 한다. 하다 보면 길도 보이고 어느새 도달해 있는 곳이 꽤나 근사한 곳일지도 모르니까. 시작은 했으니 반은 왔다. 앞으로 가보자.”

- 오*연 -

- 홍*희 -



1
서울 5호선 김포연장 노선 조정(안)과 GTX-D 김포-강남 직결 노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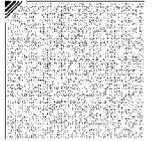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서울에 1곳, 김포에 7곳, 인천 서구에 2곳 등 총 10개 역사를 설치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중 인천지역에 환승역 2개를 설치, 김포 지역에 환승역 3개를 신설하여 김포시민의 타 노선 환승이 편리해진다.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김포시는 2월 2일 금요일 20:00에 김포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시민의견 청취회를 가진다. 김포시청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대광위는 이를 기반으로 '제4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GTX-D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중 '더블 Y자' 형태인 GTX-D 노선은 인천공항-김포에서 시작하여 강남을 지나 원주·팔당까지 연결된다. GTX-D의 1단계 노선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 문의 031.980.5532

서울 5호선 김포연장 노선 조정(안)





2

애기봉에서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김포를 느껴보세요!

얼마 전 10년 만에 야간 절경을 선보이며 화제가 된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월곶면 소재)에서 작년 12월 말부터 체험형 기념품이 새롭게 출시되었다. 아라마리나, 라베니체,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등의 김포의 주요 관광지가 들어간 DIY 체험형 제품이다. 홀로그램 필름을 이용한 금박 공예 ‘글리팅’과 스크래치 펜으로 코팅된 밑그림을 긁으면 알록달록 김포의 랜드마크가 수놓아지는 ‘스크래치 엽서’를 통해 직접 시민이 색을 입히며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다. 김포시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에 더욱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 문의 031.980.5147

3

시민에게 새롭게, 더 가까이 ‘김포시 평생학습관’ 개관

2월 13일 김포시 평생학습관이 운양동에 개관한다. 운양역 환승센터 A동(김포골드라인 운양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새로 자리 잡아 김포시 전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해져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1기 강좌는 기존 인기강좌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사를 고려한 신규강좌를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챗GPT의 이해와 활용법, 크리에이터를 위한 자격 취득, 컴퓨터 기초와 스마트폰 활용 등 7개 강좌를 신설하여 총 59개 강좌에 1,204명을 모집한다. 수강기간은 2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이고, 전 강좌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한다. 신청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평생교육 통합플랫폼 홈페이지(gimpo.gseek.kr)를 참조하거나 김포시 민원콜센터(☎ 980-2114)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031.980.5823

김포시 평생학습관 통하는 70 우리 김포

2024년 1기 정규강좌 수강생 모집

인원 24.2.13(일) ~ 24.5.4(일)

신청기간 24.1.18(목) ~ 24.1.25(목)

신청대상 59개 강좌(연차 44, 1회차 19) 중 1,204명
* 1회차 신청(교과서 발행과 관련된 강좌)

신청방법 전 3차 5일 (24.1.25(금) 14:00 전까지)

신청처 관양동 애기봉도서관 누리집
* 59개 강좌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031-980-5147, 5823, 5154

구분	명칭	개강 일자
수강신청	1. 18(목) 09:00 ~ 1. 25(목) 17:00	온라인 접수(김포시 평생교육회 통합 플랫폼, https://gimpo.gseek.kr)
추첨 및 발표	1. 26(금) 14:00	입학처 추첨, 발표(총화에서 나의 수강내역 확인 및 0485 개별 발송)
수료료 납부	1. 26(금) 14:00 ~ 1. 31(토) 17:00	온라인 결제(총화에서 나의 수강내역 - 수강신청내역(결제대기) -결제) * 기간이 지남을 즉시 수강신청을 취소, 취소후반
수강료 납부	1. 26(금) 14:00 ~ 1. 31(토) 17:00	정원 미달강좌 추가 접수(온라인 신청의도 및 대기자 등록) * 관련 발송 사항이 순번으로 문의 발송 전까지

수강장소 평생학습관이 운영실에서 새롭게 개관합니다(관양동, 개양동, 달빛어린이병원, 교정동소방센터, 화정도서관)입니다.

강좌별 개강 - 중강일

구분	일	화	수	목	금	토
개강일	2.13	2.13	2.14	2.15	2.16	2.17
종강일	4.29	4.30	5.1	5.2	5.3	5.4



4

전국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주 7일 진료 운영 실시

1월 1일부터 김포시 달빛어린이병원 3개 소가 휴일 및 공휴일은 오후 18시까지, 평일은 야간 23시까지 진료 시간을 확대한다. 3개소는 풍무 히즈메디병원(풍무메디컬약국), 구래 김포아이제일병원(새고은메디컬약국), 풍무 아름드리365소아청소년과의원(풍무우리들약국)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전국적으로 66개소가 있는데 그중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3개소를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진료 확대 운영으로 소아환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환자의 불편 완화 및 비용부담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이용하거나 김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031.5186.4020

2024년 활기차게 시작하는 김포 시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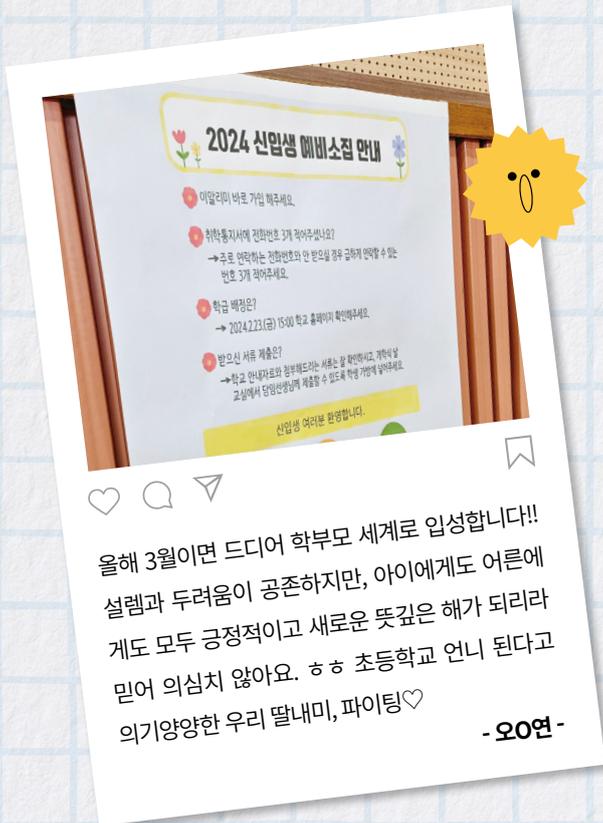
이번호 주제인 '시작'과 관련된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을 가져왔어요.
다음 달에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올해는 여자친구를 만들어 김포시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를 함께
보며,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사진은 작년에 저 혼자 본 김포시 수
상불꽃축제입니다.

-이오성-

COOL



2024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 이달리미 바로 가입 해주세요.
- 학원통지서에 전화번호 3개 적어주세요!
→ 주로 연락하는 전화번호와 안 받음일 경우 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번호 3개 적어주세요.
- 학급 배정은?
→ 2024.2.23(금) 15:00 학교 홈페이지 확인해주세요.
- 반으신 처음 계층은?
→ 학교 안내자료와 상담해드리는 서원은 잘 확인하시고, 편하신 날
교실에서 담당선생님께 계층할 수 있도록 학생 가정에 남겨주세요.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3월이면 드디어 학부모 세계로 입성합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아이에게도 어른에
게도 모두 긍정적인고 새로운 뜻깊은 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ㅎㅎ 초등학교 언니 된다고
의기양양한 우리 딸내미, 파이팅♡

-오연-



물을 좋아하지만 또 무서워하기도 해서 튜브나 구멍조끼 없이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았던 저예요. 올해는 장비 없이도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수영을 배워보렵니다. 제 도
전의 시작을 함께할 장비들을 사진에 잡아보았습니다. 파이팅!!

-이이미-





♡ ◻ ◻ ◻

귀염둥이 우리 아이의 첫 눈놀이를 위해 귀여운 장갑을 사주었어요. 아이에게 재미있는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올해의 시작, 또 어떤 재미있는 추억들을 만들어볼까요?

- 김O식 -



♡ ◻ ◻ ◻

올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몸짱이라 불렀던 적도 있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배 나온 아저씨가 되었네요. 올해는 운동을 해서 멋진 몸을 다시 만들어볼까 합니다. 물론 나이를 먹었으니 부상을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헬스가 유행이던데, 여러분도 함께 득근하시죠~

- 조O민 -



HAPPY



♡ ◻ ◻ ◻

저를 닮아 배를 까고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아이 사진입니다. ㅎㅎ 어느새 자라서 벌써 이유식을 떼고 일반식을 먹고 있네요. 올해는 또 어떤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가끔은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덕분에 하루도 웃지 않는 날이 없어 행복합니다.

- 문O건 -



♡ ◻ ◻ ◻

시작은 대부분 일출을 떠올리는데, 저는 일몰이 좋더라고요. 새해맞이 여행에서 처음으로 본 일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정리했어요!

- 최O주 -

EVENT - 사진을 보내주세요!

3월호 주제는 '안심'입니다. 김포시라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나 관련된 사연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49페이지 독자 이벤트를 참고해 주세요.



참여·지원

<제 36회 김포시 문화상> 지원

- 일시** ~ 2024. 2. 29.(목) 접수
- 대상** 1. 지역 문화예술의 보존·계승·발전에 공헌한 사람
2. 문학·음악·무용·미술·연극·사진·연예 등 문화예술 부문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작품을 발표하는 등 공헌한 사람
3. 문화예술 등의 국내외 중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 시상** 1명 (2024. 4월 중)
- 신청** 공문, 방문, 우편접수
- 접수** 김포시청 문화예술과 문화팀 (김포시 돌문로 43, 4층 문화예술과)
- 문의** 문화예술과 ☎ 031-980-2364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일시** ~ 24. 2. 29.(화) 18:00
- 대상** 임산부 1,077명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제외내용
친환경 농·축·수산물 등 구입비 지원(연 48만원, 자부담 포함)
※ 농산물 50%이상 의무 구입하여야 하며, 1회 3~12만원 주문 가능 신청
에코이몰(www.ecoemall.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 신청 가능
- 추첨** 24. 3. 14.(목)
- 주문** 24. 3. 25.(월) ~ 24. 12. 15.(일)
※ 추진 일정은 사업 진행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농정과 ☎ 031-5186-4285

‘하천가꾸기 운동’(1사1하천 가꾸기 운동) 참여단체 모집

- 일시** 연중
- 대상** 시 유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
- 내용** 우리 시 하천을 스스로 가꾸기(하천정화 및 초화류식재)
- 신청** 시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시청 해양하천과)
- 문의** 해양하천과 ☎ 031-5186-542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 일시** 올해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결과 ‘심화평가 권고’인 자(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내용** 영유아 발달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료비에 대한 지원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단, 영유아 검진 전 장애진단 받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금액**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 서류** 부부 신분증,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심화평가 권고 판정 내용 포함), 주민등록등본 1부, 정밀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정밀 검사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정밀검사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정해진 서식 없음)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 신청** 김포시 보건소 본관 1층 모자보건실
- 문의** 보건소 ☎ 031-5186-4155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안내

- 일시** ~ 4. 30.(화) (~2. 29.(목) 비대면 접수)
-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
- 내용** 소농직불금 130만 원 고정 지급
면적직불금 ha당 100~205만 원 지급
-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비대면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에게 신청접수링크 문자 발송
- 문의** 농정과 ☎ 031-5186-4279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보·안내

친환경자동차범위반과태로 안내 (10만원)

대상

- 전기차전용주차구역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외 주차금지
- 전기차충전구역 : 전기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외 주차금지
- 전기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 :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금지

제외

- 아파트에서 세대별 전기차 대수보다 전기차충전구역이 초과될 경우 초과된 주차구역만큼 별도 병행주차구역 표시 후 운영하는 곳에 일반내연차량 주차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나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이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 시

문의 기후에너지과 ☎ 031-980-5365

차량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변경

일시 24. 3. 6. ~ 5년간

내용

번호판 종류		< 현재 > 수수료(원)	< 변경 > 수수료(원)	
건설기계		12,000	7,000	
자동차	대형(승합, 화물, 버스)	14,000	13,500	
	보통(승용)	페인트식	13,000	12,500
		필름식	27,000	26,500
	전기자동차	27,000	26,500	
이륜차		4,000	4,000	

*건설기계 및 이륜차는 1매 기준, 자동차는 1조 기준

금액 봉인비 1,000원

등록번호판 부착비 2,000원

*증지와 수입인지 비용, 임시운행허가 시의 비용은 별도

방법 김포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에 방문하여 신규등록 또는 번호판 갱신 및 변경 업무처리 이후 번호판을 교부받고 부착하여 사용

문의 차량등록과 ☎ 031-5186-4919

문화·교육

김포문화재단 <수목명상> 전시

일시 ~ 24. 2. 29.(목)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장소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 창작4동

대상 김포시민

내용 김포문화재단 소장품인 대형 수목화를 감상하고 사색할 수 있는 전시

비용 무료

문의 김포문화재단 ☎ 031-996-6837

마산도서관 <세계 고전문학으로 세상 읽기>

일시 24. 2. 7. ~ 2. 28 매주 수요일 19:00~21:00

장소 마산도서관 3층 다목적실

내용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 알아보는 서양 고전문학

신청 24. 1. 24.(수) 10:00~

문의 김포시마산도서관 ☎ 031-5186-4885

고촌도서관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이의 마음과 소통하는 부모 대화법」 강의 진행

일시 24. 2. 14.(수) 오전 10:00~12:00

장소 고촌도서관 7층 세미나실

대상 학부모 20명(유·초등 자녀를 둔 김포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내용 성장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아이의 심리 이해로 부모의 훈육법 개발

신청 24. 1. 29.(월) 09:00~선착순 마감 - 김포시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접수

문의 고촌도서관 홈페이지, 고촌도서관 ☎ 031-5186-4848

김포시 반려문화교육 정규강좌

일시 2024. 3. ~ 10.

장소 김포아트홀 세미나실 및 관내 공원

대상 관내 반려견을 키우는 누구나(선착순 20명 마감) ※반려견 동물등록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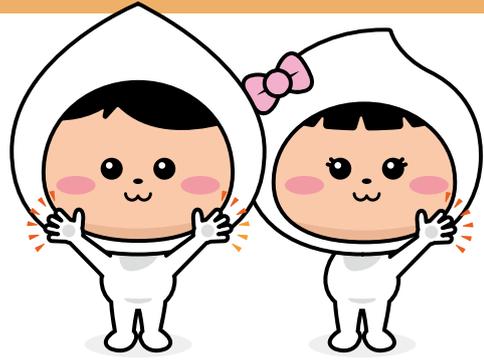
내용 · 정규강좌 운영(4기수/각 기수별 4회차 교육(월2회)x2개월, 기수별 20명), 교육 이수 후 수료증 교부

신청 2월 중(김포시 홈페이지 참조) ※ 24년 2월 모집 : 1, 2기 정규강좌만 접수

접수 김포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활용

문의 김포시 가족문화과 ☎ 031-980-5559

김포시가 쏜다~! 독자 이벤트 참여 안내



이벤트에 참여해 아메리카노 받아주세요

· 김포씨 이야기



시민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동화로 만들어 소개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웃의 행복한 이야기를 <김포마루>에 들려주세요. 결혼과 함께 김포로 이사와 신선생활을 시작한 이야기, 김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여러분의 따뜻한 동네 이야기, 김포의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는 소소한 행복 이야기, 김포시 동호회에서 처음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연히~ 당첨자를 위한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릴 거예요!! ^^*

참여 기간 2월 1일(화) ~ 2월 15일(목)

※ 해당 이벤트는 2024년 꾸준히 진행되며, 당첨된 사연은 <김포마루>에 소개됩니다.

당첨자 선정 매달 1명 선정

당첨자 상품 아메리카노 교환권 + 김포시 굿즈 + 나의 사연으로 만든 짧은 동화

당첨자 안내 김포마루 3월호에 게재되니 3월호를 확인하세요.

참여 방법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 사람 사는 김포



3월호에서는 ‘안심’이라는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과 짧은 사연 설명을 보내주세요.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김포시 서비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나를 안심시켜준 반려동물 등 다양한 사연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예 시 1. 전 아이들에게 유기농 식품만을 먹입니다.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은 믿고 안심할 수 있거든요.

예 시 2. 뭐다가 넘어질까봐 항상 불안했던 아들 녀석이 어느새 이렇게 자랐네요. 이제 안심하고 장가도 보낼 수 있겠어요.

내 용 ‘안심’과 관련된 다양한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안심할 수 있는 김포시의 정책, 다양한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참여 기간 2월 1일(화) ~ 2월 15일(목)

※ 해당 이벤트는 2024년 꾸준히 진행되며, 당첨된 사연은 <김포마루>에 소개됩니다.

당첨자 상품 아메리카노 교환권 + 김포시 굿즈

당첨자 안내 김포마루 3월호에 게재되니 3월호를 확인하세요.

참여 방법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사항

- 김포마루 우편 구독 및 독자 이벤트 응모 시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우편이나 상품발송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전화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틀린그림 찾기



2장의 사진 속에 서로 다른 부분이 5개가 숨어 있어요! 다른 부분을 찾아 사진을 찍어 QR코드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 이름,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반드시 기재 마감 매월 15일 마감

당첨자 상품 아메리카노 교환권 + 김포시 굿즈
당첨자 안내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 가로세로 낱말퀴즈

다양한 주제의 퀴즈를 풀어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을 모두 적은 뒤 사진을 찍어
QR코드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 여 방 법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 이름, 주소, 연락처 반드시 기재 마감 매월 15일 마감
당첨자 상품 아메리카노 교환권 + 김포시 굿즈
당첨자 안내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가1)					가2)		세2)			
세1)										
			세3)		세4)					
		가3)								
					가4)					

- 가로 1)** 김포시의 특산물 중 하나로, 예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음식이다. 이번 호에 소개된 팔팔양조장은 이것을 100% 사용해 막걸리를 만들고 있다. (30p 참고)
- 가로 2)** 김포씨 이야기 코너에 소개된 태권도장 이름. (34p 참고)
- 가로 3)** 김포시 공식 캐릭터 중 하나다. 물방울 모양을 형상화한 '포수'와 짝을 이루는 캐릭터로 쌀 모양을 형상화했다.
- 가로 4)** 극장에서 오전에 입장하는 관객들에게 입장 요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가수 이문세의 노래 가운데 동명의 제목이 있다.

- 세로 1)**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성당으로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542호로 등록되어 있다. 이번 호 마루마블 코너에 소개되기도 했다. (20p 참고)
- 세로 2)** 동계올림픽 종목 중 하나인 설상 종목이다. 이 종목의 실존 선수 다룬 영화 <국가대표>가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 세로 3)** 김포시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부부 유튜브버다. 이번 호 <김포마루>에 소개되기도 했다. (14p 참고)
- 세로 4)** 김포금쌀 100%의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이다. 쌀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거치는 횡수를 사명으로 지었다. (30p 참고)



김포마루 앱 / 시정문자 서비스 종료

2월 부터 카카오톡으로 김포시 소식 받아보세요!

김포시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벤트

그동안 김포마루 앱과 시정문자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포마루 온라인 홈페이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기간 | 2024년 1월 25일 ~ 2월 8일
당첨자 발표 | 2024년 2월 14일 (개별 연락)

통하는 70 도시 우리 김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 증정!

40명 추첨



새로운 소식을 SNS로!!!

김포시의회 SNS 채널 오픈!

새로운 소식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도 빠르게 받아보세요!

QR코드 찍고 김포시의회 SNS 구독!



김포시의회에서 새로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blog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